

# 재능 TODAY

발행인 이남식 | 발행처 재능대학교 방송학보사 | 주간 홍성식 | 간사 조수현 | 편집장 권예은 | 편집디자인 김형윤편집회사 | 인쇄처 (주)재능인쇄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78 | 문의 032) 890-7955 | 홈페이지 www.jeiu.ac.kr



## ‘2025 Empowering JEIU 성과포럼’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위상과 눈부신 성과 증명

### 재능의 힘과 지력을 다시 한번 호출하다

우리대학은 11월 26~27일 이틀간 ‘2025 Empowering JEIU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성과를 대내외에 전시하면서 ‘재능에서 세계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은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 성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미래 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공유회와 캡스톤디자인 작품전, ‘성장하는 재능, 빛나는 나’ 공모전 발표 및 시상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성과공유 워크숍, 교수자 전문역량 강화 과정과 예비 재능인 CCM 프로그램 등으로 매우 풍성하고 다채롭게 구성했다.

### 대한민국·인천 미래산업 선도할 AI·DX 교육혁신 공표

특히, 주목된 것은 최근 대한민국과 인천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주요 키워드인 AI·DX 교육혁신 선언이다. 우리대학은 이미 AI&Bio 프론티어 대학을 선언하고 그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AI·DX 분야의 교육혁신을 과감히 선도하여 지역산업과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산·학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과 산업이 필

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학의 목표인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학을 둘러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욱 커지고 단단해진 대학을 만들었기에 가능한 선언이라고 평가한다.

### 학생들 자신의 능력과 대학에 자부심 갖는 계기

공모전 수상 학생들의 도전·성장 스토리 발표와 예비신입생-재학생·교원 간 교류 프로그램(예비 재능인 CCM)도 안팎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캡스톤디자인 작품전시는 산업체 협력으로 해결한 실제 현장의 문제를 전시·체험 형태로 선보이며, 산학협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됐다. 이를 통해 우리대학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대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2~4년 동안의 교육성과를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앞으로 졸업 이후 취업과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천의 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미래사회와 산업이 요구하는 교육모델을 정립·확산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포럼이었다고 하겠다.

‘재능에서 세계를 발견’  
미래 사회와 산업 요구 글로벌 교육 모델 확장

# 교육·산학협력·글로벌 협력·학습 등 풍성한 성과 뽐내

## 박성훈 이사장 등 외빈 격려로 더욱 빛난 성과 포럼

2025 Empowering JIEU 성과 포럼은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특성화 전략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 인천지역 사회·산업의 HUB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전략 분야의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행사에는 재능학원 박성훈 이사장과 안순모 JCC 관장, 이사진 그리고 지역 내 유관 기관과 산업체 인사, 타 대학 관계자와 고교 교사, 예비 입학생 등이 참석해 더



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특히, 박성훈 이사장은 11월 27일 방문하여 캡스톤디자인 전시장 등을 둘러보고 학생과 교수들의 노력과 정성을 격려했다.



### 캡스톤디자인 작품전,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수준 높은 성과

캡스톤디자인 작품전에는 23개 학과가 참여해 11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재능관 1층과 2층, 4층 이벤트홀과 8층에서 각 학과를 역량을 과시하였다. 각 학과와 연관된 산업현장의 예로사항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활용 가능한 프로젝트가 전시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학생들이 기획단계부터 설계 제작, 결과물 전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산업체가 원하는 실무인재로 만반의 준비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전시회였다고 하겠다.

### 예비 재능인 CCM 프로젝트, 설렘 가득한 대학 첫 방문

2025 Empowering JIEU 성과 포럼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 중 예비 재능인을 빼놓을 수 없다. 수시 1·2차 모집을 통해 입학이 확정된 신입생을 초청해 우리대학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11월 27일 오후 1시부터 재능관 5층 대강당과 각 학과 실습실은 예비 재능인들의 설렘으로 가득했다. 캡스톤디자인 작품전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학과의 특성과 진로를 파악했으며 교수·선배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 것이다.



### 교수자 전문역량 강화 Course, 교육의 질이 대학 경쟁력

11월 27일 오후 2시 재능관 10층 CEO특강실에서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자 전문역량 강화 Course가 진행되었다. '창의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교수 전략', '문제를 통한 배움 : 문제중심학습(PBL) 마스터하기'를 주제로 전과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교수와 교육의 질이 대학과 학생의 질적 수준 반영한다는 관점 아래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이루어진 것이다.

### 학습지원 프로그램 성과공유 워크숍, 학생 성공·행복 지원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는 재능관 10층 CEO특강실에서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 성과공유 워크숍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운영한 학과의 교수와 학생의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모두 4개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다.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직업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과 맞춤형 대학 적응 프로그램과 J(JIEU) Together 프로그램 등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학습지원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있어 질 높은 학생·학습지원의 모범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축제 'CAMP ON JEI', 공감 통한 즐거운 대학문화의 장 낭만은 추억으로, 열정은 순간으로

우리대학은 11월 20일 2025 가을 축제 'CAMP ON JEI'를 개최했다.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단합을 이루기 위한 대동의 큰 마당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가을 축제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재학생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공간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학과 부스에서는 오코노미야키, 계란말이, 진저쿠키, 떡볶이 등 먹거리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판매하였고, 풍선아트와 취업 타로 보기, 데드리프트 무게 대결 등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도 큰 인기를 끌었다. 또 현대시장에서 함께 버터 옥수수, 어묵, 닭꼬치를 팔아주며 축제의 먹거리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축제의 장에서도 확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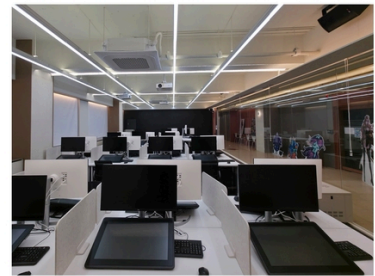
개회식 이후로 우리대학 실용음악과 밴드 '제이 보이즈', '제이클래프', '제이블루스'의 무대가 이어졌다. 특히, 아티스트 '몽순임당'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체육부장을 이겨라!'까지 다채롭게 마련된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가을 축제 'CAMP ON JEI'의 절정은 미란이, 김승민, 우디 등 힙합 가수의 공연이 이끌었다. 끊이지 않는 함성이 가을밤을 가득 채웠고, 재능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열기는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흥겹고 즐거운 축제였지만, 학생들은 문화인답게 참여해 건전한 대학 문화의 모범을 만들었다.



### 재능관 8층, 게임의 세계로 로그인 게임개발학과·게임아트디자인과 첨단 실습실 구축

우리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에 맞춰 재능관 8층을 게임 개발과 체험의 천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지난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교육환경 개선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8층은 재능관과 그 외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도 수행했다. 이 공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글로벌평생직업교육 선도대학의 역할에 걸맞게 바꾸고, 동시에 게임개발학과·게임아트디자인과 실습실을 집적함으로써 학과 간 연계와 협업의 효과성을 높이게 되었다. 게임개발스튜디오 2개실을 비롯하여 게임개발실습실, 게임체험실습실, 게임세미나실 등을 새롭게 구축하여 게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탄실한 인큐베이터를 마련한 것이다.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종합대상 수상**  
AI 기반 교육혁신 선도 대학으로 굳게 자리매김

우리대학은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위원회, 국제미래학회, 전자신문, 국회미래정책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AI를 기반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선도할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I기술혁신 성과를 이룬 기관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리대학은 AI-X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노코드 기반 실무형 AI 교육모델’을 도입해 전문대학 AI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세대 K-NIBRT와 바이오공정 전문 인재 양성 위한 MOU**  
전문학사 대상 교육과정 공동 운영, 커리큘럼 개발 등 협력

9월 16일 연세대학교 K-NIBRT사업단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5개 전문대학과 함께 ‘바이오공정 전문학사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남식 총장을 비롯해 5개 전문대학(동양미래대, 안동과학대,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의 총장,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종수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 한균희 K-NIBRT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전문학사 대상 바이오공정 교육과정 공동 기획 및 운영,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교육 인프라(시설·장비) 공유, 산업계 수요 반영, 교육 품질 표준화 및 인재 역량 균질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D프린팅 융합기술 교육 거점 'K-하이테크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개소**  
티타늄-스테인리스 출력 '금속 3D프린팅' 구축

10월 17일 제물포캠퍼스에서 지역 기업 재직자 대상의 3D프린팅 융합 교육훈련을 위한 ‘재능대학교 K-하이테크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첨단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국가 신기술 융합훈련 사업으로, 지역 산업체 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우리대학은 의료·바이오·전자·기계 분야 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시 교육훈련을 운영한다.



**이남식 총장 ‘2025 혁신대학 세계총회’에서 교육 혁신사례 공유**  
글로벌기업 산학협력과 송도 글로벌캠퍼스 첨단 바이오 인재 양성 큰 관심

우리대학 이남식 총장은 9월 24일 동명대학교에서 열린 ‘2025 혁신대학 세계총회(WURI Global Conference)’에 참석해 교육혁신 전략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 컨퍼런스는 세계혁신대학랭킹(WURI·World University Rankings for Innovation)을 주관하는 국제학술행사로 26개국 150여 개 대학의 총장, 교수, 교육 전문가, 산업계 리더 등 약 400명이 참석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자리다. 특히, 우리대학은 삼성바이오로지스·롯데바이오로지스 등 글로벌 기업과의 산학협력 사례 등을 통해 대학이 산업과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구체적 모델을 제시해 큰 관심을 받았다.



**인천 동구 현대시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적극 협력**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 연계 업무협약 체결

9월 8일 제물포캠퍼스 재능관에서 현대시장 상인회, 현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허중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 이 협약식에서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 브랜드 ‘들강날깡’ 설명회, 현대시장 상인회에 대한 우리대학의 ESG 친환경 비닐봉투 2만 장 기증, ‘현대시장 재능대가 살린다!’ 손피케팅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양 기관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사업, 전통시장 협업대학 사업, 현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공동 추진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RISE 사업단, ‘2025 항공드론 융합기술 세미나’ 개최**  
지역 항공·드론산업 최신 기술 공유

RISE 사업단이 9월 11일 인천 송도 오라카이 호텔에서 ‘2025 항공드론 융합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인천광역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I-RISE) 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특화 기술교육’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컨소시엄 기관인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함께 드론 및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과 지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지역 내 취·창업 기회 창출로 이어질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항공드론 분야 매치업(Match업) 인증과정 통해 드론 전문인재 배출**  
 '항공드론 매치업 어워드', 산·학·연 공동협력 강화  
 10월 25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우리대학 매치업인재양성사업단이 운영한 2025년 산업맞춤형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Match업)'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과정은 항공드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교육생의 역량 강화와 취·창업 성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를 보였다. 함께 열린 '항공드론 매치업 어워드'에서는 우수 교육생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공동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시스테크-Skyline과 드론 3D 영상처리 인재 양성 협약**  
 글로벌 기술기업과 협력, 드론 특성화 교육 강화  
 8월 25일 (주)시스테크(대표 박성진)와 미국 스카이라인 소프트웨어시스템즈(CEO 로니 야른)와 드론 영상취득, 3D 영상처리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과 3D 지리공간 기술을 융합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 기관은 드론 영상취득, 3D 영상처리 기술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3D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강사진 지원, 글로벌 3D 지리공간 교육 솔루션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인천e스포츠협회와 e스포츠·게임산업 발전 MOU**  
 인재 양성, 산업 활성화,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발 등 협력 강화  
 9월 1일 (사)인천e스포츠협회(회장 박광식)와 e스포츠 산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e스포츠협회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국내 e스포츠대회 유치·운영, e스포츠 과목별 청소년 지원사업, 인천 관내 유망선수 발굴 등 지역 e스포츠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e스포츠 대회 공동 개최, 산업체 현장실습 및 산학 공동 기술·연구·교육과정 개발, e스포츠 분야 정보·기술 교류 및 인적·물적 자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동구 상생일자리사업 '남성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수료식**  
 신중년 남성 전문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17명 배출  
 인천광역시와 인천 동구의 지원으로 5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 '어르신 돌봄 남성전문가 일자리 플랫폼 사업-요양보호사 취득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중년 남성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지역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참여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리대학은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해 50~60대 남성 17명에게 397시간의 표준교육과정과 자기 탐색, 직무역량 강화, 취업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목표 대비 106%의 수료율을 달성했고,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중년 대상 '단체급식 조리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전문대학 연계 신중년 직업교육 지원사업, 신중년의 새로운 일자리 도전 지원  
 우리대학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 '전문대학연계 신중년 직업교육 지원사업(서비스자격분야): 단체급식 조리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해당 과정의 수료생들은 총 33회차 129시간에 걸친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이수했다. 한식조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이론·실습 교육과 함께, 현지 조리 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실무 노하우를 익히며 단체급식 조리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태무회·아수라태권도시범단과 태권도 교육 협력 강화**  
 글로벌태권도학과 인착과 성공 위한 교육·취업 긴밀한 연계  
 9월 9일 재능관 대회의실에서 태무회와 아수라태권도시범단과 태권도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다. 이를 통해 태권도 전문인력 양성, 학술정보 교류,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등 온·오프라인 활동에서 폭넓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태무회는 인천지역 15개 도장에서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태권도 단체로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해왔다. 아수라태권도시범단은 초·중·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인천의 전문 공연단으로 국내외 대회와 초청 공연 무대에서 활약하며 각종 전국·국제대회에서 수상 실적을 쌓고 있다.



**제1회 재능대학교 총장기 JEIU 문대성 평화컵 전국태권도대회** 성황리 개최  
1,300여 명 태권도인 한자리, 태권도 저변 확대와 화합의 장 마련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물포캠퍼스 체육관에서 ‘제1회 재능대학교 총장기 JEIU 문대성 평화컵 전국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선수·지도자·학부모 등 약 1,300명이 함께하며 대회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참가자와 관람객의 뜨거운 열정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의 장을 넘어서 태권도인 간의 교류와 화합, 태권도의 저변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선수들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태권도의 스포츠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를 재확인했다.



**추성호 인성코퍼레이션(주) 대표, 발전기금 500만 원 전달**  
재능대 출신 기업인, 모교 발전과 후배 지원 위해 뜻 모아  
10월 20 추성호 인성코퍼레이션(주) 대표로부터 대학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번 기부는 우리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탁금은 장학금과 교육시설 개선, 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추성호 대표는 우리대학 동문으로 인성코퍼레이션은 지난 8월 법무부로부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뷰티모드칼리지와 ‘글로벌 뷰티 교류페어’ 개최**  
한일 뷰티 전문대학 간 교류로 글로벌 협력 강화  
우리대학 RISE사업단은 10월 20일 재능관 이벤트홀에서 일본 오키나와의 뷰티모드칼리지와 함께 ‘재능대학교-뷰티모드칼리지 글로벌 뷰티 교류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I-RISE(인천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두 기관은 K-뷰티 기술력과 일본의 실무교육 노하우를 공유하며 장기적인 교육 협력모델 구축에 뜻을 모았다. 향후 공동 세미나와 워크숍 등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산학협력과 학생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가에 ‘K-뷰티 연수’**  
I-RISE 글로벌 교류사업 인천 뷰티기업 (주)메조팜과 공동 운영  
10월 21일 인천 소재 뷰티기업 (주)메조팜(대표 노재국)과 베트남 기업 라모스파(LAMO Spa) 소속 메디컬 스킨케어 병·의원 원장 등 전문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K-뷰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인천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I-RISE) 사업의 ‘뿌리산업 등 연구개발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 과제의 일환으로 인천이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역 직업계고 3곳과 ‘학교 밖 교육’ 협력체계 구축**  
진로 탐색 및 실무중심 학습 인프라 지원  
우리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0월 21일 재능관 대회의실에서 인천소방고등학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재능고등학교와 ‘학교 밖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개설이 어렵거나 시설 인프라가 필요한 과목을 대학이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특성에 맞는 실무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네 기관은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목(과정) 공동 설계,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의 공동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함께한 ‘로컬 팝업스토어’ 큰 호응 속 마쳐**  
창업동아리 10팀 참여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 성과 공유  
우리대학은 인천 동구 현대시장·동부시장과 함께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로컬 팝업스토어’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송림골사계솔마당에서 진행됐으며, 대학 내 10개 로컬 창업동아리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계란빵, 쌀다시마 아이스크림, 인생도시락, 로컬사진 캘린더 등을 전시·배포하고, 로컬키링과 핀버튼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해 나누는 등 지역민과 소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인권센터

인권감수성 확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인권교육, 학과 맞춤형 강의로 호응

인권센터는 00월 00일 부터 00월 00일까지 재학생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3개 학과 6개 반 72명을 대상으로 교재폭력 예방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유용한 특강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강의를 처음 들어봐 유익했다",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려는 목적에서 각 학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하여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이다.

인권스텔라와 인권 캠페인, '사람을 별처럼, 인권을 빛처럼'

서로 존중하는 대학문화 확산 계기

인권스텔라와 함께 2학기 동안 총 2회의 인권 캠페인을 운영했다. 9월 2일에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자율관 1층에서 성평등 인식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람을 별처럼, 인권을 빛처럼'을 주제로 약 1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했으며, 성평등 OX퀴즈와 인권 슬로건 전시를 통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10일에는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100여 명의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교재폭력·스토킹 범죄 관련 OX퀴즈를 풀고, 피해 상황 발생 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포스트잇에 적으며 관련 인식을 강화했다.

'인권친화 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일상 속 인권 실천 사례, 사진-에세이 13편 선정

10월 14일 재능관 대회의실에서 '인권친화 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활 중 내가 했던 인권 실천 활동'을 주제로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작품을 접수했으며, 인권 가치 실현 정도, 창의성, 메시지 전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3편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사진 부문 최우수작은 어린이 인성캠프 자원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에세이 부문 최우수작은 장애학생 멘토링 경험을 통해 "서로 받쳐주고 밀어 주며 함께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전했다.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특성화고와 엠코 일학습병행 합격자 현장견학 프로그램 진행

합격자 19명, 세계 2위 규모 현장에서 반도체 미래 체험

9월 29일 협약 특성화고 교사와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대표 이진안) 일학습병행 채용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K5 송도사업장 내 '엠코 센테니얼 홀'을 둘러보며 기업의 성장 과정과 반도체 산업 전반의 흐름을 이해했다. 이어 물류자동화라인과 오버홀 장비 등 주요 생산 공정을 직접 살펴봤다. 엠코테크놀로지는 세계 2위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으로 최첨단 패키징과 테스트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에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일학습병행 호텔외식조리과 '미술랭스타셰프팀',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대회 '동상' 수상

일학습병행으로 다져진 탄탄한 실력으로 유명대학들과 승부

일학습병행 호텔외식조리과 재학생들이 10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년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성과공유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식품외식 분야의 기술 사업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미술랭스타셰프팀(김형백·김희담·유지나·윤시우·윤은지 학생)은 유일한 전문대학 팀으로 '짜장분의 시크릿 레시피'를 주제로 카이스트, 서울대 등 대학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천옹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백령도 어린이집에서 쌀강정·매작과 직접 만들며 전통음식 체험 진행

쌀강정 키트를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 호평

우리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옹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9월 23일 백령도 소재 등록급식소인 해병대후룡어린이집에서 '쌀강정 키트'를 활용한 학부모 참관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쌀강정과 매작과를 직접 만들고 전통차와 함께 맛보며 우리 고유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올바른 양치법을 배우며 영양과 위생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리대학-재능고, 넷마블과 함께 게임산업 진로·취업 현장체험

글로벌 게임기업 방문 실무역량 강화

8월 26일 우리대학과 재능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게임기업 (주)넷마블과 연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대학 게임아트디자인과·게임콘텐츠과 학생 21명과 재능고 학생과 교사 9명이 함께 참여해 넷마블의 역사와 대표 게임 IP(지식재산권)를 소개하는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직무 특강에서는 게임 기획, 개발, 운영 등 다양한 직무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와 커리어 설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언을 들었다.



재능고 학생 140명에 실전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이미지 메이킹부터 면접 실습까지, '취업 자신감 쑥'

9월 2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관으로 재능고 학생 약 140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맞춤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태도와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호감 가는 첫인상을 만드는 이미지 메이킹,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 매너, 기업 면접 실전, 상황별 대처 능력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운영되었다.



지역청년 대상 '청년수요맞춤 취업사진클리닉' 운영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통해 무료 취업사진 촬영 지원

졸업생 특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0월 22일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질적인 구직 준비와 전략을 지원하고자 '청년수요맞춤 취업사진클리닉'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구직자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이미지 메이킹과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며, 취업 준비의 첫인상을 완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인천장애인부모회에 커피차 전달... 사회복지과 졸업생 취업 격려

졸업생 채용 기관에 감사 전하고, 현장 근무 중인 졸업생 응원

우리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0월 14일, 사회복지과 졸업생을 꾸준히 채용해 온 (사)인천장애인부모회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졸업생들을 위해 커피차를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장애인부모회에서 진행됐으며, 근무 중이던 졸업생들과 임직원들이 커피차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음료와 간식을 함께 즐겼다. 인천장애인부모회는 주간보호센터와 그룹홈 등 15곳의 부설 복지기관을 위탁운영하며 장애인 이용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쿠광폴필먼트서비스와 인천·경기권 채용박람회 개최

21개 물류센터 참여, 700여 명 구직자 몰려 성황

10월 30일 제물포캠퍼스 재능관에서 쿠광폴필먼트서비스와 함께 '인천·경기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지역상생과 청년 서장을 지원하는 이 행사에는 우리대학 학생과 지역 청년과 중장년 등 700여 명의 구직자가 박람회를 찾았다. 특히, 쿠광폴필먼트서비스에 처음 지원하는 이들을 위해 직무 체험이 가능한 '쿠광 알바관' 부스가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우리대학 학생을 비롯해 지역 청년과 중장년 등 700여 명의 구직자가 박람회를 찾았다. 특히 쿠광폴필먼트서비스에 처음 지원하는 이들을 위해 직무 체험이 가능한 '쿠광 알바관' 부스가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주)경북공면세점과 '글로벌관광비즈니스와 맞춤형 취업특강' 진행

면세비즈니스 이해와 관광산업 진출 역량 강화

11월 11일 (주)경북공면세점과 함께 글로벌관광비즈니스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맞춤형 취업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에 위치한 (주)경북공면세점이 참여해 면세비즈니스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관광산업 직종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경북공면세점 인사담당자가 공항 근무 환경과 면세산업의 주요 업무, 채용 절차 및 필요 자격 요건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간호학과

‘제1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으로 간호 전문직 소명 되새겨

예비 간호사 80명, 생명 존중과 책임 의식 다짐

11월 7일 제물포캠퍼스 대강당에서 ‘2025 제1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선서식에서 2학년 재학생 80명은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과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025 간호연구 발표회’, 학생 주도 연구 성과 공유

감염예방·환자안전 등 다양한 연구 결과 발표

10월 24일 ‘2025 간호연구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연구 논문 7편과 포스터 5편이 발표됐다.



한국간호연구학회 학술세미나 ‘최우수상’ 쾌거

3학년 학생연구팀, 감염예방 수행 향상 위한 교육 전략 제시

11월 17일 3학년 학생팀(유민주·맹지예·김희주·남예은·이경희·임선희·정하빈, 지도교수 이혜진)이 ‘2025년 한국간호연구학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초록논문 발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호텔의식조리과

‘2025 향토식문화대전 국제탑셰프 그랑프리’ 전원 수상 쾌거

로컬 식재료 활용한 창의적 요리 호평, 대상·금상·은상 석권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향토식문화대전 국제탑셰프 그랑프리’에서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회는 전국의 조리·외식 관련 전공자들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창의적 요리로 실력을 겨뤘다.



항공서비스과

제주항공과 함께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객실 서비스 역량 강화

항공서비스과는 ‘항공서비스 전문 직업인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9월 4일 제주항공과 연계하여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제주항공 훈련원에서 진행되었다.



JCC아트센터 ‘Heartpool: Feel & Fill’ 전시 통해 마음을 느끼고 채우다

예술을 통해 내면의 성장과 타인의 감정 이해·공감하는 기회

1학년 학생들은 재능그룹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JCC 아트센터에서 10월 30일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JCC 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Heartpool’ 전시 관람으로 진행됐다.



뷰티스타일리스트과

일본 이시카와 이용미용전문학교와 K-뷰티 교류 세미나 개최

K-Beauty 헤어스타일링 실습·간담회 진행

8월 20일 제물포캠퍼스에서 일본 이시카와 이용미용전문학교 방문단과 함께 K-Beauty 헤어스타일링 세미나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시설 투어, 한·일 뷰티산업 현황 소개등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뷰티 콘테스트’, 한·일 뷰티 인재 한자리에

40개 팀 열띤 경연, K-Beauty 특강에 큰 호응

9월 30일 재능관 이벤트홀에서 일본 후쿠오카 이·미용전문학교(RIBI)와 IBW 미용전문학교 방문단과 함께 ‘2025 제1회 글로벌 뷰티 크리에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바이오생명과학과

2025 한국생물공학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금상·은상 휩쓸어

6개 팀 출전해 금상 2개, 은상 3개, 동상 1개 수상

바이오생명과학과 학생들이 ‘2025 한국생물공학회 추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BB Jump(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Jump)’ 전문대학 부문에서 금상 2개를 비롯해 다수의 상을 받았다.



바이오테크과

전문대 최초 '셀트리온 바이오공정 시설투어' 진행

글로벌 기업 현장학습으로 차별화된 교육 경쟁력 입증

1학년 학생들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선도기업인 셀트리온(인천 송도 본사)에서 9월 3일 바이오공정 시설투어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 등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흐름을 배웠다.



'2025 RISE UIC X 경진대회',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우수상 수상

'AI 기반 저전력 스토리지 이전 시스템' 혁신성 인정

우리대학 '그린인사이드'팀(바이오테크과 2 이가연·황주영, 간호학과 2 김현수)이 8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RISE UIC X 경진대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드론영상과

'2025 드론 페스타 마스터부' 1위 차지

1학년 박호열·정희철 학생팀, 드론농구 종목 우승 영예

1학년 박호열·정희철 학생이 9월 20일 '2025 충청남도 드론 페스타' 드론농구 종목 마스터부에 출전해 치열한 경쟁 끝에 1위를 차지했다. 신속한 판단력과 호흡이 돋보여 심사위원과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의료행정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5년 획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보건의료행정과가 9월 5일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유펜가원으로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 기간은 2031년 2월 28일까지로 최대 기간인 5년을 인증받았다.



글로벌관광비즈니스과

인천형 관광인재 양성, 인천국제공항 탐방

면세점 운영과 글로벌 서비스 직무 이해도 높여

10월 17일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관광인재 양성 맞춤형 과정'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Air-Side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복지케어과

도전 복지골든벨, 하나 되어 도전! 울려라, 골든벨!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김성준 회장의 직무특강도 진행

11월 8일 제물포캠퍼스 체육관에서 재학생과 동문 150여 명이 모여 제1회 복지 골든벨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오후에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김성준 회장의 직무특강도 진행해 알찬 하루를 완성하였다.



시각디자인과

'202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디자인버스킹' 장려상 수상

로컬 브랜드 '더꾸러미' 개발, 소비자 친화적 패키지 디자인

10월 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디자인버스킹'에서 인천광역시와 협력해 진행한 '더꾸러미' 브랜드 및 패키지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예비디자이너전' 15점 출품

증강현실 기반 무빙포스터 작품 선보여

'202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예비디자이너전'에 총 15점의 작품을 출품해 'AI 그리고 사람(AI and Human)'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시각언어로 풀어냈다.



실용음악과

실용음악과와 함께한 SOOP의 '찾아가는 락케스'

다양한 무대 경험 통해 음악적 역량 키워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SOOP과 함께 '찾아가는 락케스'를 제물포캠퍼스 재능관 대강당에서 10월 23일 진행했다. '락케스'는 SOOP의 서수길 대표가 진행하는 음악 콘텐츠로 클래식,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전개하고 있다.



평생교육원

### 인천시민대학에서 만난 이금희 아나운서

‘대화의 노하우’ 주제로 소통 방식 공유

평생교육원은 10월 30일 제물포캠퍼스 재능관 5층 대강당에서 방송인 이금희 아나운서를 초청해 명사 특강 ‘한마디 말로 우리는’을 열었다. 주제는 ‘대화의 노하우’로 이금희 아나운서는 방송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말 한마디의 힘과 따뜻한 소통의 가치를 전달하였다. 이번 특강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 칼리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지역사회 프로그램’ 통해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

생활형 요리강좌 운영과 평생교육 개선 방안 모색

평생교육원은 11월 19일 제물포캠퍼스 재능관 쿠킹스튜디오에서 지역사회 프로그램 ‘대학-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등 지역주민 20여 명과 함께 운영했다. 전대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주민들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그레놀라 만들기와 실습 중심의 요리 강좌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조리기술을 배우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영재교육원

### ‘별별우주여행’ 통해 신비한 우주 탐사

인천 동구와 관학 협력, 초등 창의논리 가을캠프 운영



영재교육원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초등 창의논리 가을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천 동구청이 후원하고 영재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캠프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관내 8개 초등학교 및 동구 거주 초등 1-4학년 학생 160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직접 로켓을 만들어 목표 지점으로 날려보는 실습과 우주 팽창 원리를 탐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또 코딩 로봇을 활용한 우주 쓰레기 제거 미션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도 키울 수 있었다. 아울러 학부모를 위한 뇌파 검사를 통한 뇌건강 진단, 힐링 원예체험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했다.

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

지역과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작은 손, 큰 변화 재(능)금(창)줍줍 작품展' 개최  
작은 손이 만든 큰 변화,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의 환경사랑 이야기

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은 금창어린이집과 함께 '작은 손, 큰 변화 재(능)금(창)줍줍 작품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2025 지역기반형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아들이 직접 참여한 환경보호 활동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작품전은 유아들이 우리대학 캠퍼스와 인근 공원 등에서 진행한 '줍깅(줍기 + 조깅)' 활동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주운 쓰레기를 관찰하며 재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어린이들은 신문지를 활용한 재생종이 그림책, 페그립책으로 만든 이야기책, 페락스로 만든 로봇 미디어아트, 병뚜껑을 이용한 동물원, 페페트병을 활용한 가드닝 작품 등 다채로운 업사이클링 결과물을 선보였다. 어린이들의 작품은 우리대학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성과전시회'와 함께 소개되었다.



한편, 재능대학교부속유치원은 2026학년도 신입 유아 모집을 시작하였다. 우선모집은 11월 3일(월)부터 11월 10일(월)까지, 일반모집은 11월 19일(수)부터 12월 1일(월)까지 국가입학관리시스템인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진행되었다.

재능중학교

재능중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성공적 마무리  
미래학교로 거듭나 인천 교육의 새 이정표 세워

재능중학교가 2025년 9월 22일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미래형 학교로 도약했다. '공간재구조화'란 노후된 학교 시설을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국가 정책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 및 AI 교육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다. 새롭게 변모한 교사(校舍)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구하며 협력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거듭났으며, 이는 인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교사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실, 높은 교육 만족도

이번 사업의 중심에는 교사들의 열정이 있었다.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학생 경험을 최우선에 둔 공간 설계가 이뤄졌다. 수업 방식과 학습 흐름을 반영한 교실은 교육 현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 과학·예술 융합형 특화 교실, 학생 친화적 휴게 공간은 배움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재능고등학교

재능고-재능대-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반도체 일학습병행 인재 양성 선도 모델 구축  
인천지역 직업교육의 새로운 협력 방향 제시

반도체 기술 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지역의 재능고등학교-재능대학교-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함께 구축한 일학습병행 기반 반도체 인재 양성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춘 실무형 기술교육 체계를 고교-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역 직업교육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능고등학교는 반도체 기초기술 인력 양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고교 단계에서부터 전기·전자 회로, 디지털 공정 이해, 측정 장비 운용 등 NCS 기반 핵심 직무능력을 학습한다. 또한 일학습병행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산업안전, 직무기초, 현장 이해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기업현장 적용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후 심화 단계는 재능대학교가 맡는다. 재능대는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반도체 공정 심화 교육, 품질관리 기초, 데이터 기반 공정 분석, 현장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고교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교과를 지원한다. 특히,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대학 간 커리큘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직업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최종 단계인 기업 현장훈련은 인천을 대표하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기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담당한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실제 패키징·검사 공정 전반을 기반으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습근로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재능고에서는 이 모델이 "단순한 산학협력 수준을 넘어서 교육기관과 산업체가 함께 설계한 직업교육 생태계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반도체·AI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기술인재 양성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재능교육

### 재능교육 JCC 개관 10주년

예술과 교육 결합한 다양한 공연, 전시, 특강 열려



종합교육문화기업 재능교육과 안도 타다오의 협업으로 탄생한 JCC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공연과 전시로 눈길을 끌고 있다. JCC는 지난 10년간 재능교육의 스스로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보다 성장, 기술보다 감성, 결과보다 과정”의 가치를 실천하는 ‘재능동화구연대회’, ‘재능시낭송대회’, ‘해화마티네’ 등의 다채로운 대회, 공연, 전시, 강연 등을 선보이며, ‘예술이 교육이 되고, 교육이 예술이 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성장해왔다.

세대 아우르는 공감 전시 《Heartpool : 하트풀》, 가족 단위 관람객 발길 이어져  
'2025 서울아트위크'의 공식 참여 전시로 합류한《Heartpool : 하트풀》은 '마음을 느끼고, 마음을 채우다(Feel & Fill)'를 슬로건으로, '권기수, 남상훈, 백주연, 임지빈, 정세윤, 과야'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예술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아트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월에 시작된 전시는 11월 9일까지 이어졌다.

JCC 건물 외부에 설치된 임지빈 작가의 'EVERYWHERE' 프로젝트인 대형 베어 벌룬 설치 작품도 JCC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작품은 예술이 전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일상 속으로 확장되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향후 JCC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콜라보 프로젝트로 마련되었다.

재능문화

### 재능교육의 스스로교육철학을 꽃피운 제25회 재능동화구연대회

10월 18일(토)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서 75명 본선 경합

재능그룹 재단법인 재능문화가 주최한 제25회 재능동화구연대회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혜화동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재능동화구연대회는 2001년 시작된 이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온 것은 물론, 재능 있는 동화구연가들을 배출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해온,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인 동화구연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의 예선과 본선을 거쳐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총 24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온라인 예선에 지원했으며, 음원, 동영상 심사를 거쳐 유치부 25명, 초등부 25명, 성인부 25명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특히, 올해 본선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JCC아트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재능문화의 JCC 개관 10주년 특별기획전 '하트풀(Heartpool)'과 연계해 진행되어, 전시장에 방문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화구연 공연을 감상하고 참여하는 기회도 가졌다.

올해 성인부 대상 수상의 영예는 '민들레 이야기'를 구연한 최비결 씨(광주)가 안았다. 초등부 대상은 '넙새 맡은 값'을 구연한 이혜운 양(영리초 3학년)이, 유치부 대상은 '삼년고개'를 구연한 이라는 양이 각각 수상했다. 심사는 김용희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김종석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홍정화 재능동화구연협회 회장이 맡아 공정하고 세심한 평가를 진행했다. 재능교육의 스스로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보다 성장, 기술보다 감성, 결과보다 과정”의 가치를 실천하는 재능동화구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재능교육, 재능방송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국내 최대, 전국 규모의 동화구연 대회이다. 본선 성인부 대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인증 동화구연가증서가 추가로 수여되어, 구연 전문가로서의 자격과 명예를 함께 인정받는다.



인천, 어디까지 가봤니?

### 책의 숲, 송도국제도서관

독서의 일상화, 거리를 좁히다



10월 말, 송도에 새로운 공공 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많은 책과 책장들에 압도되었다. 웅장함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돋보였다. 도서관을 둘러보니 각 층마다 많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또한 곳곳에 콘센트와 전등이 옵션인 책상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공부하거나 책을 읽기 좋았다. 그러나 입구와 이동 공간, 앉아서 활동하는 공간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아 소음에는 취약했다. 도서관보다 공공 스타디 카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 공간은 장점이 매우 많다. 송도에서 작업하거나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곳을 기꺼이 추천하고 싶다. 책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책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다.

편집장 권예은

책 추천

###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지는 책

〈오늘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 〈오늘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이다. 이 책은 한 번 자고 일어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소녀가 평범한 소년의 장난 고백을 받아주면서 시작되는 로맨스 소설이다. 개인적으로 소설 장르 중에 로맨스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책은 처음으로 끝까지 읽게 된 로맨스 장르 소설이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설정도 흥미로웠지만, 어떤 방식으로 소년의 연애 스토리를 이어 나갈지도 무척 궁금했다. 읽어가면서도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마무리 지을지 상상이 가지 않아 더욱 조바심을 가지게 하는 책이었다. 2022년에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일본 실사화 영화가 개봉하여 100만 관객을 돌파하였고, 한국에서는 2025년에 뮤지컬로도 공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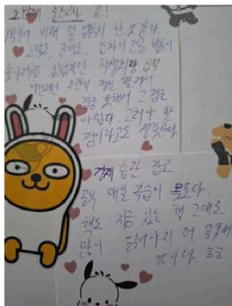


학생 기자 성보미

함께 알아보아요

### 기록의 힘

쌓인 추억으로 나를 더욱 성장시킨다



여러분은 본인만의 특별한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기록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하루가 그냥 스쳐 가듯 지나가는 것이 아쉬워 매일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분기마다 일상 블로그를 통해 친구들과 일상을 나누고, 종종 비공개 글로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생각이 많은 저는 항상 여러 생각에 잠겨 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글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된 지금, 복잡한 머릿속으로 괴로워질 때면 다이어리나 컴퓨터를 열어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작성하며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를 거쳐 무수히 쌓여 있는 기록들 속에서 저의 상황과 고민을 한눈에 확인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김영하 작가는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결국 나 자신이다”, “쓰고 있다는 것은 읽게 될 미래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을 글로써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며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기 마련이지만, 조금씩 저만의 스타일대로 완전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아질 고민의 순간 속에서 기록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에 마주할 더 성장한 본인의 모습에 희망을 더해 줄 것입니다.

이번 2026년, 나만의 기록을 통해 더 나아가는 것은 어떤가요?

편집장 권예은

### 추운 마음을 녹이는 축제 타임

축제의 도시 인천에서 뜨거운 겨울을 만나보자



바람이 차가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 밤을 지켜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쓸쓸해지고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포장마차 아래의 빛이나 공원의 가로등에서 우리는 겨울이 주는 색다른 낭만과 꿈,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계양 빛 축제’는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양구 주부트로 일대(계산체육공원 인근)에서 열리는 행사이다. 꿈을 주제로 약 500m 일대에 다양한 구조물과 야간 조명을 사용해 만든 조명 구조물과 미디어아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포토존과 체험 부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11월 20일부터 계양구에서 개최하는 ‘2025 크리스마스 페스타’는 높이 14m의 대형 화이트 트리과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조형물, 반짝이는 트리로 꾸며져 방문객들에게 눈 내린 겨울 동화 속을 걷는 듯한 특별한 풍경을 선사한다. 작년 연말에는 강화도에서 열리는 얼음 축제와 빙어축제 등 연말 겨울 축제도 있었으니 이번에도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인천의 겨울 축제를 통해 마음과 감성이 따스한 겨울을 보내길 바랍니다.

학생 기자 한재균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

### 크리스마스의 역사

#### 종교적 의미와 문화적 전통의 합작

12월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크리스마스. 지금은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지만, 이날이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정확한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서기 4세기경 로마 교회가 공식 기념일로 정하면서 자리 잡았다. 일부 학자들은 로마의 동지 축제였던 '사투르날리아'와 태양신 숭배 축제가 이 날짜 선정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 기존 축제 문화에 기독교적 의미가 더해지면서 오늘날 성탄절의 기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종교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기념하며 학생들에게도 연말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날이 됐다. 종교적 의미와 문화적 전통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크리스마스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학생 기자 박민서

이것 정도는 알아두자

### 드디어 곧 종강!! 알찬 방학계획 추천

#### 여행하고 배우고 쉬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시작되는 겨울방학은 휴식을 가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한 해 동안 아쉬웠던 부분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겨울방학이기도 하면서 2026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방학 동안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기 중에는 학교생활로 바빠 시간이 없으며 미루어왔던 자격증 공부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자격증은 자신의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예전부터 관심 있던 자격증이나 외국어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격증이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처음 배우는 거라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방학이 끝날 즈음에는 무엇인가 하나는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꼭 자기 계발만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도 재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전시 중심으로 교양을 쌓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해외가 아니어도 본인이 거주하던 지역이 아닌 새로운 지역을 여행하며 여유를 즐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 여행의 경우 교통비가 부담되면 '내일로 패스'를 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기차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나의 수고에 대한 보답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학 동안 본인의 아쉬웠던 점을 빈틈없이 채워 26년은 활기차고 후련한 기분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학생 기자 성보미



### 현대시장과 함께한 '송림골 청춘야장'

#### 지역 상생·협력의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

현대시장 내 송림골사계솔마당에서 진행된 '송림골 청춘야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송림골 청춘야장'은 10월 25일과 11월 1·7·8일 총 4일 동안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현대시장과 동부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튀김우동, 닭강정, 잔치국수, 병어조림 등 시장의 대표메뉴를 조리하고, 야장 마당으로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우리대학에서는 호텔외식조리과와 바이오테크과, 시각디자인과 등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역 상생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는 단순한 먹거리 장터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과 지역의 시장이 함께 만들어낸 이상·협력의 풍경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학생들이 학과별로 참여해 행사에 활력을 더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이런 경험이 학생들에게도 값진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송림골 청춘야장'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의미와 흥미도 잡고 더불어 지역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하겠다.

학생 기자 박민서



글로벌평생직업교육대학  
**JEI 재능대학교**

배움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나의 재능을 장점으로 만들어 내면의 목소리를 키우는 여정입니다

# 나를 더욱 나답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나만의 답을 발견하는 곳  
우리의 열정이 지혜로, 지혜가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에 **재능대학교**가 함께합니다.



항공서비스과 24학번 김수아

**입학 문의** 032.890.7020~1  
ipsi.jeiu.ac.kr



JEI 재능홀딩스 JEI 재능교육 재능스스로교실 JEI 재능방송 JEI 재능TV JEI English TV JEI 재능e아카데미 JEI 재능인쇄  
JEI 재능유통 JEI PLATZ JEI 재능셀프러닝 JEI 재능교육연수원 JEI 재능학원 JEI 재능대학교 JEI 재능문화 JEI JCC